



보도 일시	2022. 12. 16.(금) 11:30	배포 일시	2022. 12. 16.(금) 09:00
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

담당 부서	재정관리국 국가결산체계개편팀	책임자	팀 장 김완수 (044-215-5360)
		담당자	사무관 이동훈 (kahn6158@korea.kr)

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「국가결산보고서」 개편 방안 마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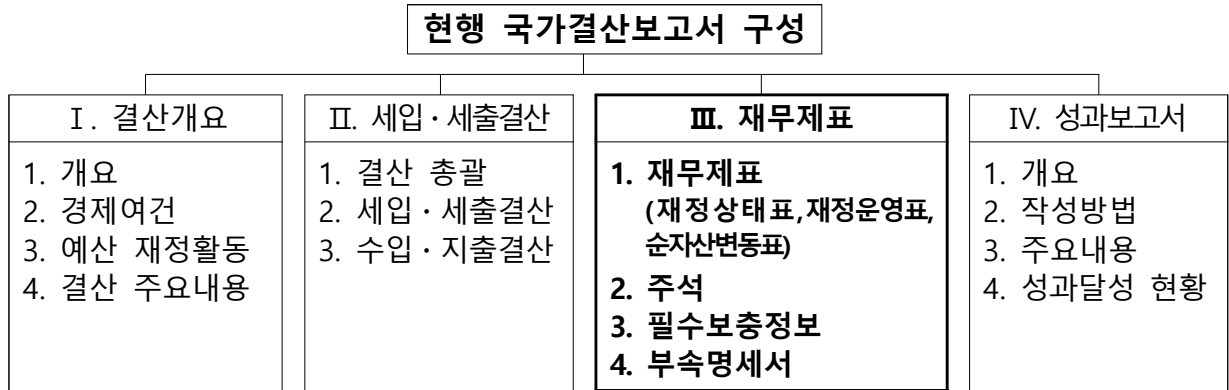
- 기획재정부는 12.16일(금) 김윤상 재정관리관 주재로 제32차 국가회계제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국민중심 결산서를 작성하기 위한 「국가결산보고서 개편 방안」을 심의·의결하였다.

<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개요>

- (일시·장소) '22.12.16.(금) 10:00~11:30(90분), 한국재정정보원
- (참석자)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, 재정관리국장, 감사원 결산검사과장, 민간위원 6명*
 - * 정도진 교수(중앙대), 박경진 교수(명지대), 김선미 교수(전남대), 유승원 교수(경찰대), 임근구 전무(삼정회계), 박개성 대표(가립회계)
- (안건) 국가결산보고서 개편 방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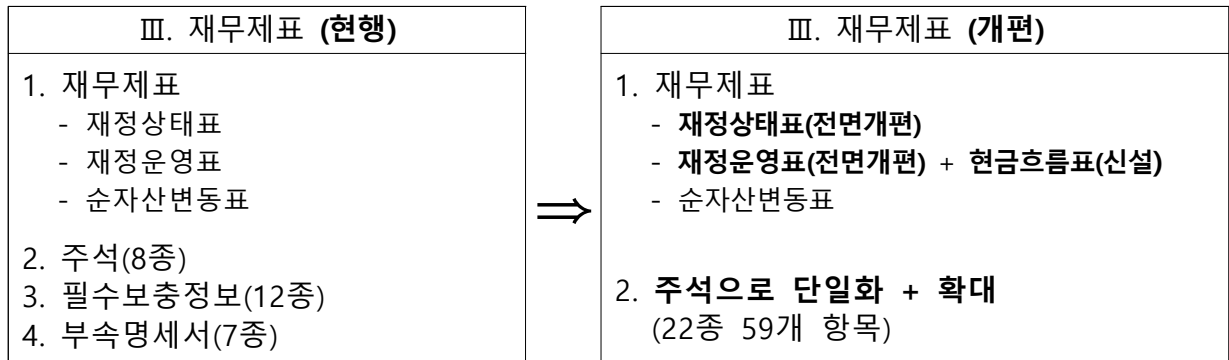
- 이번 개편은 국가결산보고서가 국민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어려워 재정 전반의 모습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에서 추진되었다.
- 특히, 재무제표는 내용이 복잡·방대하고 전문적 용어 중심으로 작성되어 일반 국민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,
- 결산에 투입되는 노력에 비해 재무제표의 활용 정도가 크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관계 전문가 등의 지속적인 지적 및 제안도 고려되었다.
- 정부는 발생주의회계가 도입된 지 10년('12.5월 재무제표 최초 국회제출)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'국가결산의 유용성 제고'라는 목표를 가지고 결산체계 개편을 추진해 왔다.

- 개편안은 ①국민이 쉽게 이해하는 국민중심 결산서 제공, ②재무제표 기반 결산분석기능 확대, ③국제흐름에 부합하는 결산서 구성이라는 기본 방향 하에 국가결산보고서 중 재무제표 개편 중심으로 마련하였다.



- 구체적으로 재무제표 중 재정상태표·재정운영표는 전면 개편하고, 현금흐름표를 재무제표에 신설한다. 또한 주식·필수보충정보·부속명세서로 분산되어 있는 재무제표 설명자료를 주식으로 단일화하고 작성대상을 확대한다.

<재무제표와 주식 개편 방안 개요>



① 재정상태표(대차대조표와 유사) 분류체계 개편 및 간소화

- 결산 분석 유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재정상태표를 전면 개편하고, 공시 계정과목을 간소화

- (유용성 제고) 발생주의 기준에 따른 차입부채와 이에 상응하는 금융자산 규모를 집계하여 실질 채무부담 파악 등 다양한 분석정보 제공
- (공시 간소화) 재정상태표 한 눈에 파악 가능(상세 설명은 주식으로 공시)
 - (종전) 8페이지(계정과목 102개) → (개편) 1페이지(계정과목 34개)

② 재정운영표(손익계산서와 유사) 순원가 집계방법 개편 및 간소화

- 재정운영표 활용도 제고를 위해 15대 분야별 사업원가를 집계하는 「분야별 재정운영표」 등으로 전면 개편하고, 공시 계정과목을 간소화

- **(활용도 개선)** 활용도가 낮은 부처단위 재정운영순원가 집계를 15대 분야별 순원가 집계방식으로 개편하여 현금주의에 따른 분야별 결산결과와 비교·분석 가능
- **(공시 간소화)** 재정운영표 한 눈에 파악 가능(상세 설명은 주석으로 공시)
 - (종전) 6페이지(계정과목 76개) → (개편) 1페이지(계정과목 29개)

③ 현금흐름표 도입

- 국가 현금흐름을 운영·투자·재무활동으로 집계하는 현금흐름표 도입

- **(현금흐름 질(質) 분석)** 재정활동(운영·투자·재무)별로 현금 조달원천과 사용 결과를 집계하여 국가 현금흐름 정보를 한 눈에 파악 가능
 - 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단순히 현금계정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지만 현금흐름표는 현금의 증감을 각 재정활동별로 구분하여 현금흐름이 건전한 것인지, 미래 지출 의무를 수반하는 증가인지 제공

④ 주석체계 개편

- 주석·필수보충정보·부속명세서로 분산되어 있는 재무제표 상세 설명 자료를 주석으로 통합·단일화하고, 결산 설명 강화를 위해 주석 작성 범위를 대폭 확대

- **(공시 강화)** 주요 선진국 국가결산서 작성 흐름 반영 + 민간 수준의 주석 공시 확대

□ 오늘 발표한 내용은 국가회계법령 및 회계처리 지침 제·개정, 디브레인 시스템 개편 등 후속 기반 작업을 거쳐 '25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하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.

- 개편 방안에 대해 금년부터 과거 결산자료를 활용하여 시범결산을 추진해 왔으며, 앞으로도 시범결산을 지속하여 개편의 적합성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.
- 김 관리관은 이번 개편 추진이 국민에게 보다 친숙하고 유용한 결산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임을 강조하고,
 - 결산서 시행 전이라도 시범결산 결과를 관계기관 및 학회와 공유하고 공동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세부 개편방향에 대한 의견수렴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하였다.

<별첨> 「국가결산보고서 개편 방안」

